

삼성SDI, 80인치 대형 PDP 개발

TV용 디스플레이로는 세계최대 ... 단일 노광공정에 명암비 더욱 선명

삼성SDI(대표 김순택)가 TV용 디스플레이로는 세계최대 크기인 80인치 풀(Full) HD급 PDP를 개발했다고 1월6일 발표했다.

새로 개발된 80인치 PDP는 두께 89mm의 초박형 제품으로 브라운관, LCD, 프로젝션, DLP 방식을 통틀어 현존 TV용 디스플레이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화면을 자랑한다.

특히, 삼성SDI는 80인치 제품 개발과정에서 1장의 PDP 유리 원판에서 40인치급 PDP를 한꺼번에 4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4면취 생산기술을 세계 최초로 확보하는 데 성공해 생산성 면에서도 최고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가로 1920라인, 세로 1080 라인의 풀 HD급 해상도에 1000칸텔라(cd/m²)의 휘도(밝기)와 2000대1의 명암비를 구현해 고휘도와 고명암비를 동시에 구현하는 기술력을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30인치대(37인치)에서 80인치까지 각 인치별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삼성SDI는 제품 개발과정에서 확보된 4면취 공정기술과 회로 부문의 슈퍼(S)급 핵심 기술들에 대해 조만간 국내외 특허 등록을 추진해 앞으로 한국-일본 PDP 업계 간 지적재산권 문제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SDI가 선보인 80인치 PDP



80인치 PDP는 2004년 상반기 본격 출시될 70인치 PDP와 함께 대형 회의실, 공항과 기차역의 대합실 등 공공장소에서 퍼블릭씨어터(Public Theater)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성SDI는 80인치 제품을 2004년 하반기 가동 예정인 천안공장의 PDP 제3라인에서 소량 생산하기 시작한 뒤 시장 상황을 보며 점차 생산량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삼성SDI PDP본부장 배철한 부사장은 “80인치 제품 개발로 삼성SDI가 신제품 개발 능력, 양산 능력, 세계시장 점유율 등 모든 면에서 PDP 업계를 선도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4면취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초대형 디지털 TV 시장에서 PDP가 절대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2003년 12월 PDP 제2생산라인을 준공함으로써 생산규모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섰으며, 2004년 말에는 월 12만대 규모의 제3라인을 가동해 총 월 25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한해 100만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1/07>